##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 조음 위치조음 방법 | 양순음 | 치조음 | 경구개음 | 연구개음 | 후음 |
|------------|-----|-----|------|------|----|
| 파열음        | 日阳立 | СПЕ |      | 7117 |    |
| 파찰음        |     |     | ス双え  |      |    |
| 마찰음        |     | 入从  |      |      | ठे |
| 비음         | П   | L   |      | 0    |    |
| 유음         |     | 己   |      |      |    |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위 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 [자료]

- ⓐ 덧쌓는[덛싼는] ⓑ 속력도[송녁또] ⓒ 읽었고[일걷꼬]
- (d) 겉옷만[거돈만] (e) 맞붙임[맏뿌침]
- ① ②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② ⑤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고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③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
- ④ 예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 ⑤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 39.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지시·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 감탄형 어미는 평서형으로 실현 된다(예보는구나→본다고).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 -<자 료>-

- 그는 그제 우리에게 ⑦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 ① ⑦은 '모레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② ③의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③ ①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④ 🕒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⑤ ⓒ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푸근: 안녕하세요?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의 푸근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을 띄울게요. 오늘은 공학 박사이신 전선 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전선: 안녕하세요! 전선입니다.

푸근: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전선: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푸근: ⓐ 제가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갔다가 현지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기지 않아 휴대 전화 충전에 애를 먹었어요.

전선: 그랬군요. 우리나라와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차이가 있죠.

[A]

② **가을비** 전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나라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겨야 해서 번거로워요.

푸근: 가을비 님, 맞아요. 번거롭죠. 전선 님, 그런데 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른가요?

전선: 일본은 전기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 나라마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다 보니 '플러그와 콘센트'의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띄워 주실래요?

푸근: 네. 화면을 나눠서 이미지를 띄울게요. 질문이나 의견은 계속 올려 주세요.



전선: 화면에 나오는 A형, B형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 C형, F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B]

아침 '플러그와 콘센트'도 국제 표준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네요. 왜 그렇죠?

중경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침 님, 풍경 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1986년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N형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이미 독자적으로 표준을 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국제 표준 규격을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푸근: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원래 A형을 쓰지 않았나요?

전선: 네. 110V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A형을 썼었어요. 그러다 열악한 전력 사정을 고려해서 110V에 비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은 220V로 바꾸는 승압 사업을 197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플러그와 콘센트'도 C형, F형으로 바꿨죠.